

연륜 차이 넘어 치열한 작가정신 보여줘

불구적 현실에 대한 분노와 애정 담아

김외곤 | 서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문학평론가

이 가을에 나온 창작집 가운데 윤정모, 구효서, 전성태의 소설을 읽는 느낌은 한마디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문단 데뷔 연도로 따지자면, 중견 작가인 윤정모와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히 굳힌 구효서, 그리고 이제 첫 창작집을 상재한 전성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의 창작집들은 그러한 연륜과 상관없이 각자 나름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윤정모의 소설은 언제나 그러하듯 사회적 토대를 잃어버리거나 거세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지촌 등에서 해외로 장소가 옮겨져 갔긴 해도,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소설에는 특히 해외 이주자의 삶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을 통해 해외 교민 사회의 문제점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무의미한 일상을 되풀이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실상을 다루고 있다.

해외 이주자의 삶과 함께 그가 즐겨 다루는 소재는 조각난 가족사항이다. <불룩거울>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족 상황은 과거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분위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거기에는 가족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비정하고 속물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저주하거나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족을 묘사하는 이유는 균열이 심해 더 이상 봉합하기 힘든 가족 관계를 통해 새로운 세기를 앞둔 우리의 사회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

윤정모/《만 나라 여인》
열림원/A5신/224면/7000원
구효서/《도라지꽃 누님》
세계사/A5신/370면/8500원
전성태/《매향》
실천문학사/A5신/318면/7500원

해서가 아닐까 한다. 그러면 서도 작가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은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희망의 조각을 남겨 놓는다.

윤정모보다 일상에 훨씬 깊이 파고든 작가가 바로 구효서다. 그의 작품에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상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자신이 아주 강한 세상의 틀에 얽매어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라 할 지라도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인물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작가는 이에 대한 대답을 홀연히 일상에서 사라지거나 살해충동을 느끼거나 가학적인 섹스를 하거나 자살이라는 미

끼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구효서가 우리에게 그러한 대답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일상에 얽매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통찰인가. 이처럼 구효서의 작품에 들어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깊은 사색의 결과는 한편으로 읽는 이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슬프게 하기도 한다.

전성태의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단박에 ‘이 시대에 농촌 소설이구나?’ 하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절대로 케케묵은 농촌의 서정 따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농촌(때로는 광산촌이 될 수도 있다) 현실을 정신이상자나 육체적 불구자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분노랄까 절망은 깊게 표출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적 요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보다도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가 김소진 이후 맥이 끊겼던 웅성깊은 우리말 찾기를 잊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의 사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어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 때 전성태는 이미 작가로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셈이다. 굳이 김유정이나 이문구를 잊고 있다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촌의 삶에서 느끼는 해학을 재치 있게 그려내는 그의 문체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독자는 드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설에서 건지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